

16/09/11(주) 주일예배 / 제목 : 빌라델비아교회에게 주시는 말씀(계 3:7~13) p. 402

(7)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8)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9)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10) 내가 나의 아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1)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 하리라 (13)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빌라델비아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은 모두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이들 일곱 교회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일곱 교회들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는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머나 교회처럼 박해에 굴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버가모 교회처럼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하면 교회가 그 성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두아디라 교회처럼 죄로 얼룩질 수도 있습니다. 더욱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데 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교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빌라델비아교회는 외형적으로는 다른 초대교회들에 비추어 비교적 미약했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는 매우 알차고 튼튼한 모습을 갖춘 교회로서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책망을 전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습니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칭찬만을 받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은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였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빌라델비아교회는 비록 크기는 작았을지라도 그 체질적으로는 결코 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다섯 교회들보다는 더 능력 있는 교회로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강하고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본론** /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들

### 1.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7절)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려면 먼저 '빌라델비아' 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실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을 알아야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은 주전 2세기에 ~~비오왕의 아들~~ Attalus II, B. C. 159~138)에 의해 건설된 도시입니다. ~~이후 2세~~ '필라델푸스'(뜻: 형제사랑)라는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빌라델비아'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주후 17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모두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로마의 황제 ~~네로~~가 재건하여 오늘 날에 이르는 도시가 되었고, 직물과 피혁 산업이 발전하고 포도 농사도 잘되던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 300여 교회의 성찬용 포도주를 항상 무상 공급하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고 합니다. '형제 사랑'이란 이름에 걸 맞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포도가 넘치는 곳이라서 교회 밖에서는 '디오니수스'라는 술의 신을 섬기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 주후 100년경부터 60여 년 동안 ~~아미아~~(Ammia)라는 여 선지자가 탁월하게 사역하여 교회의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 주변에 회교 즉 이슬람의 영향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심하였지만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 핍박을 잘 이겨냈습니다. 1932년까지도 기독교 도시로 존속해 왔다는 것이 이와 같은 점을 입증합니다. 빌라델비아의 지금의 이름은 '알라세히르'라는 이름인데 뜻은 '알라의 도시'입니다. 이는 터키가 이슬람의 영향권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일곱 교회에 편지하실 때마다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각 교회의 사정에 맞추어서 자신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자신을 세 가지 간접적인 방식으로 나타내셨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시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닫으시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결정할 권세가 오직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또한 "거룩"과 "진실"이라는 단어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그 주님의 하나님 되심 즉 '신성'과 또한 미쁘심 즉 '신실하신 성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들 1.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7절)

### 2. 주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8~10절)

8절을 보십시오.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

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인간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위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 사역은 열린 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비록 빌라델비아교회의 크기는 작았을지 몰라도 그 교회는 천국으로 인도해 들이는 소중한 문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것처럼 가장 귀한 일을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계속 역사하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함은 바로 복음진리를 전해진 그대로 받고 이단의 도전으로부터 사수해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예수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리에서도 그 신앙을 변절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비록 빌라델비아 교회는 겉보기에는 모이는 사람들의 수도 적고, 건물도 초라하고, 시설도 형편없었지만 이들에게는 능력과 생명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빌라델비아교회 교인들은 복음과 신앙에 투철한 진짜 신자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들을 통해 전도 받고 감화 받고 중생 받아 결국 구원의 문에 들어가게 되는 자들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약한 교회는 교인 숫자가 작은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지킬 줄 모르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힘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다른 것 모두를 제쳐놓고 우선 지금 있는 교인들이 모두가 바른 복음, 바른 신앙생활 가운데 사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칭찬은 또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서머나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시 빌라델비아에도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여호와와 의 총회”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표면적이며 자칭 유대인일 뿐이었습니다. 영적인 견지에서 보면, 실상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들은 거짓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기회만 있으면 기독교인들을 모함하여 정치적으로 핍박을 당하게끔 "거짓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원래 세상 국가의 권위를 존중하며 살아야 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로마 정부로부터 특별히 탄압을 받을 만한 실제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정부의 관리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독교가 로마 정권에 큰 위협이 되는 반역적인 단체라고 모함했습니다.

이들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온갖 거짓말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대적했기에 그들의 실상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탄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유대인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들을 가리켜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라고, 그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교회 교인들은 기독교신자에 대한 온갖 중상모략을 다 받으면서도 사랑과 용서와 온유함으로 시험을 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빌라델비아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것처럼 계속 인내로써 시험을 이기면 나중에는 기

독신자를 적대하던 유대인들 중에서도 회개하여 기독교신자로 개종하게 될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 해주셨습니다. ‘거짓말 하는 자들 중에서 맺을 네게 주어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 앞에 절하고 자기들의 모든 잘못을 사죄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높이 인정하고 자기들도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함께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의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장차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기독교신자들은 그들을 진정으로 이긴 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말 어느 쪽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을 그들에게 당당히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내로서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지켜주심으로 시험의 때까지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인내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인내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에 예수님께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라는 말씀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겠다는 뜻입니다. 시험을 당하지 않고 통과하도록 해주시든지 아니면 당하더라도 넉넉히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시험은 장차 임하게 될 시험이고 온 세상에 임할 시험입니다. 그렇지만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는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세계적인 시험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만 임할 시험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내세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 땅의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장차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큰 시험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큰 환난입니다. 그들에게 임할 큰 환난에 대한 설명은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 나오는 일곱 나팔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 시험의 때를 면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역시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하신 크나큰 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들 1.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7절) 2. 주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8~10절)

### 3.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11~13절)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능력, 순종, 충성, 인내를 굳게 잡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셔서, 고난을 당하는 의인을 구원하시고 의인을 박해하는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둘째는, 아무도 그들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차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그들은 그들이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는 장차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될 것이라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하지만 이 말씀은 새 예루살렘 성 등의 건축물에 기둥이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장차 임할 천국은 성전 자체가 필요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에 기둥이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일군으로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일 위해 섬기는 것을 상급으로 받게 되는 원칙입니다(마 25:23). 기둥이 건축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새삼 설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특히 빌라델비아 시는 당시 잦은 지진이 일어났던 곳이었으므로 그 교인들은 이 "기둥"이란 표현에 담긴 무게를 충분히 실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 나라 일에 중히 쓰임을 받는 일군이 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단 기둥이 되면 그 건물에서 스스로 빠져 나갈려야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일단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선한 사업에 크게 쓰임 받는 신자가 되면 그 신앙도 결코 탈선할 수 없는 확고부동의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즉 바로 그 성도 위에 기록하겠다는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름을 쓰셨다는 말은 당신의 것으로 확인하셨다는 뜻입니다. 결코 다른 데로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확실한 소유물로 인치신 것입니다. 교회의 기둥으로, 선한 구령 사업의 요긴한 일군으로 쓰이게 된 성도는 스스로도 빠져나가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코 놓치시지도 않는, 그야말로 그 현세와 내세가 확실히 보장된 든든한 인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멋진 '기둥'이 되어버린 성도들이 계속 교회를 받쳐나가고 있을 때 빌라델비아교회는 비록 작았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약한 교회는 될 수 없었으며 아무도 넘보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실로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됩니까? 그 교회를 통하여 신실하고 충성된 주의 일군이 배출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를 바로 지키고 충성으로 섬기는 자리에서는 요지부동할 줄 아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며 거기에 내 생활과 신앙의 전부를 아예 뿌리박을 줄 아는 '기둥'들이 자리 잡지 못하는 교회야말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 참된 일군 없이 그저 허약한 교인 숫자만 많아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닥이 넓어지고 지붕도 확장 되는데 그것들을 받쳐줄 기둥들이 함께 늘어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교회가 양적으로 크게 되면 될수록 더 무너질 위험이 많아질 것은 상식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비록 숫자는 적다할지라도,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한 군데씩 떠받치는 기둥들이 되면 그 교회는 결코 쓰러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기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교회를 키우시고 성도들을 교육시키시는 말씀은 얼마나 오묘합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은 '작은 교회는 곧 약한 교회'라는 선입견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저 '크게' 되는 것에만 몰두하고 '강하게' 되는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정말 '귀 있는 자'답게 듣고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오히려 작은 것을 귀히 여기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큰 헌금 내었던 부자가 아니라 적은 것이었지만 온 정성으로 바친 과부를 극찬하신 분이셨습니다. '서너 명'도 아니고 '두세 사람'만 모여 기도해도 당신께서는 그 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목자에게서 떨어져 나간 실로 무력한 양과 같은 성도들을 가리키시면서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눅 13:7)고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약속해주신 분이셨습니다.

'작은 자들'이 이것을 모른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작다는 것을 이유로 삼고 작다는 것을 핑계로 삼아 스스로 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합리화하는 태도야말로 '작은 자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숫자가 작은 것이 약한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가 정말로 약한 교회입니다. 예배당 없는 교회가 불안한 교회가 아니라 기초적인 시험조차 이기지 못하는 교회야말로 부평초(浮萍草: 의지할 데가 없어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처럼 약한 교회입니다. 예산이 작은 교회가 힘없는 교회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일꾼 없는 교회가 정말 약한 교회인 것입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규모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시험거리가 있을 때에 그 시험을 잘 이겨내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계속해서 시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고 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평소에 영적 '인내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계시록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말하는 계시록 내용에서 먼저 일곱교회의 실상을 언급하는 이유는 주님만 더욱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항상 선하시고 옳으신 주님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예비된 무한한 복까지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향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자가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이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더욱 주님만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부디 이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핵심 :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켜서 면류관도 지키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도 됩시다.

**요약정리** /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들

1.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7절)
2. 주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8~10절)

3.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11~13절)